

# 여주시, COP28 유치 총력... “이달 중 탄소중립 도시 선언”

여주시의회 COP특위 본격활동  
중앙부처 방문·유치홍보 전개  
“남해안남중권 강점 적극 활용”



전남 여주시의회

전남 여주시의회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특별위원회(COP특위)는 중앙부처를 찾아가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COP28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여주시의회(의장 전창근)에 따르면 COP특위는 지난달 21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백인숙(위원장), 문갑태(부위원장), 정경철, 고용진, 이미경, 권석환, 주종섭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COP28 유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중앙부처 방문, 남해안남중권 지역 협조 노력, 유치 홍보 활동 전개 등을

우선 펼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남해안남중권 유치위 주관 토론회에 참석해 남중권 유치를 위한 역량을 강조할 예정이다.

백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여러 지자체가 COP28 유치에 나선 상황인 만큼 남해안남중권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남해안남중권 지자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결집에 여주시의회가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갑태 부위원장은 “메인 슬로건의 대국민 공모를 통한 홍보와 유치 범조

성이 필요하다”면서 “COP28 유치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배출 관련 여수산단 업체들이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행사유치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철 의원은 “COP28 유치 시 남해안남중권 지역의 파급효과를 잘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미경 의원은 “여주시민이 생활 속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숙 위원장은 “여주시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은 일찌감치 COP28 유치를 준비해왔다”며 “세계박람회장과 KTX 노선 등 여수만의 우수한 인프라와 남해안남중권이 가진 다양한 자연환경 등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시가 유치 추진 중인 2022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제28차 총회(COP28)로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OP28은 지난 7월 국가행사로 최종 승인됐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 유치를향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COP28 유치에 앞장선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후 보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후보호주간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탄소 중립 도시 선언도 계획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여주시가 10월 12~14일까지 18:30분부터 19시까지 돌산대교 주탑등에 ‘장기 기증’ 상징색인 초록색 불을 켜는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에 나선다.

## 여주시 생명나눔 그린 캠페인 참여

여주시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에 참여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18:30분부터 19시까지 여수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돌산대교 주탑등에 ‘장기 기증’의 상징색인 초록색 불을 켜 예정이다.

이번 점등 캠페인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기증희망등록이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질병관리본부 산하(제)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전국 주요 랜드마크를 보유하고 있는 12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대구, 여수, 순천, 제주, 세종, 태안, 경기도 구리, 김해, 분당)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 중기중앙회-김영록 지사, 中企 협동조합 활성화 모색

(전남도)

협동조합 추천제 활용 등 요청  
공공기관 중기 제품 확대 건의



중기중앙회가 12일 전남 목포 현대호텔에서 연 ‘김영록 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만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대거 위치한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2일 목포현대호텔에서 김기문 회장, 김석원 광주전남 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내수보완 대책으로 판로지원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말까지 5000만원이던 조합추천 수의계

약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됐다”면서 “민간부문의 수주급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산하기관에 대한 홍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전남도와 광주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지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충북과 부산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올해부터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에서도 협동조합 활

성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도 더욱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도’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늘고 있지만, 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지원 제도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 혁신도시에 이전해 있는 16개 공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끈끈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전남의 지역 경제를 지켜온 주역”이라면서 “제안해주신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경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참여학생 지원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공모 사업인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미·예천지역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들에게 ‘학생 통학지원 교통카드(사진)’를 제작해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 통학지원 교통카드는 학생 개인별 진로맞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인근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화순군, 미래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순향’ 예천군, 예천읍 일원 전선 지중화 추진

실과소장 등 참여 중간보고회 개최



푸드플랜 중간보고회.

화순군은 지역 내에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가 선순환하는 미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푸드플랜(먹거리 종합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지역푸드플랜 구축행정협의체(TF)와 관계기관(화순교육지원청, 화순농협, 도곡농협)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분야별 다양한 의견과 푸드플랜 추진 방향을 공유·논의했다.

지난 7일에는 연구 용역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실과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협의체(TF/

도시경관 개선·통행불편 해소

예천군은 도시경관 개선과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읍 원도심 일원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으로 예천군과 한전·통신사가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지난 2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한전과 통신사는 도로굴착 후 관로를 매설하고 예천군이 포장복구를 맡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0억 원

의 예산으로 시가지 내 중앙로와 시장로, 효자로 등 3개 노선 3.2km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구간별로 나눠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1차 공사로 38억 원을 들여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상권이 집중된 예천교~국제신발 240m와 백한의원~황금침과까지 560m를 10월 말에 착공,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소음과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 가능한 한 예정된 기한 이전에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 영양군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영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위기를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56만원)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급년 7~9월 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된다.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영양(경북)=김희성 기자 khs161700@